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인문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

주간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이다
(사 12:1)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1:21)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4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장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이태복

2004년도 제3차 청지기훈련 믿음의 승리(마 15:21-28)

보라!

몸과 마음 헌납이 지켰어도 한 영혼 찾아 댈 길 가신 주님의 마음을,
있는 양 찾아 입안 들뜬 개를, 절벽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 마음을,

보라!

혹시라도 절망 믿음으로 쫓겨쳐온 주께 달려온 한 이방 여인을,
깊은 광산에서 깨어난 보석처럼 영혼한 그 믿음의 빛을.

보라!

심해 물 들은 척 외면하시도 주님 앞에 숨겨진 저 깊은 사랑을,
우리 고동 아시면서도 진실한 믿음 보기에까지 살아있는 주님의 고통을,

보라!

인간 믿는 대신 같은 장애물을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여겨 나가는지를,
가난 풍랑 때문에 더 빨라 나아가는 범선처럼 합쳐게 전진하는 그 믿음을.

2004년도 마지막 청지기훈련을 금주 금요일에 실시합니다.
수로보기에 여인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여인의 믿음을 다룬 신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참 믿음이 무엇이며
또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우리도 수로보기에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 차: 10월 29일(금) 오후 7시~9시

장 소: 총현교회 본당

강 사: 김장관 원임목사

좌석배치: 본지 7면 참조

타이머 운영 -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달고 오묘한 그 말씀(금요일) - 피택자로 주제 발표

눈물의 사역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게도 눈물의 사역이 있다.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있어야 할 눈물의 사역은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주 의 몸 된 교회에서 매일같이 할 눈물과 흘려 넘쳐야 할 눈물을 구분해보고 거룩한 눈물의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자.

외식과 속임의 눈물 - 인간의 죄성 중의 하나는 외식이며 속이는 것이다. 때로는 가식적인 눈물로 사람의 마음을 속일 때도 있다. 삼손을 속인 블레셋 여인의 눈물이 그러했고(사 14:7), 말라기 시대 때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들의 눈물이 그러했다(렐 2:13). 특히 우리도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러한 눈물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말라야 한다.

쓸데없는 눈물(소박하는 눈물) - 하나님의 깊은 심연 경로는 전혀 생각도 않고 오직 우리 자신의 죄와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흘리는 눈물 이러한 눈물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말라야 한다. 하나님의 복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던 예서는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렸고(히 12:17), 재물을 준비하지 않은 악한 자들도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마 24:51), 빚세 바가 남은 자네를 잃은 후에 다윗도 눈물을 흘렸지만(사 12:14),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우리는 어떤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는가?

결심의 눈물 - 복음 때문에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게 될 때, 신실한 성도들은 복을 위한 결심의 눈물을 흘린다.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기 위해 에스더가 흘렸던 눈물(에 8:3), 병고침을 얻으려고 하산가야 흘렸던 눈물(사 38:3),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한나의 눈물(삼상 17:10), 친구들의 조롱 앞에서 용이 흘리는 눈물(골 1:26),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눈물(시 68) 주님은 성도들의 이러한 눈물을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 천국을 위한 교회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것은 우리 눈에서 늘 흘러내려야 할 눈물이다.

감사의 눈물 -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눈물이다. 죄 사함을 받은 감격 때문에 가슴 벅찬 기쁨의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언제였는가? 예수님께 향유복

을 깨뜨려 붓고 머리털로 씻겨드리던 여인의 눈물(눅 7:38,39),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던 시인의 기도시(대 12:5,6) 우리에게도 이러한 눈물이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경고의 눈물 -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강한 경고의 눈물도 있다. 삼년이나 밭날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복음으로 가르쳤던 바울의 눈물(행 20:3), 자기 배를 채우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흘렸던 뜨거운 눈물(행 3:18) 이러한 눈물이 정말 있어야 한다. 과연 우리는 바울처럼 열마리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행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흘린 경고의 눈물을 기억하고 회개하자. 자기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실천하는 회개가 되자.

시종의 눈물 -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눈물(렐 9:18, 13:17, 애 2:18,19),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시사로와 큰 환난에 처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요 11:35, 눅 19:41) 우리도 천지창조의 작과 고난을 생각하며 민족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가?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도 오로지 예수살렘을 위해 우셨던 주님의 눈물은 사랑의 극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할 차례이다.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우는 자가 되자.

회개와 간구의 눈물 - 재화로 이루어진 아람과 예서의 눈물(창 33:4), 형제들을 만난 요셉의 눈물(창 45:14,15),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의 눈물(막 18:3), 귀신들린 딸을 고쳐 줄 것을 예수님께 간구하는 눈물(마 7:25-28), 자신의 눈과 고쳐줄 것을 예수님께 구한 소경의 눈물(막 18:35-38),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예수님의 눈물(히 5:7) 우리에게 는 이러한 눈물과 기도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시실 때 많은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가하시며 위로하고 계신다. 이 땅에는 눈물이 있다. 그러나 주님이 내심 천국에는 눈물이 없게(대 2:4).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날을 준비하는 주님의 재치로서 주님과 함께 한 결집적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자.

2005년 일문명단 확정발표

지난 3월 28일 공동의회를 통해서 피택된 장로 4명과 안수집사 50명, 그리고 전사 61명이 6개월간의 피택자교육을 성실히 마치고 교회내 이반 주 수요일에 임직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고귀한 생명의 값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임직자들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여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라는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오직 주의 말씀에 매인 바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좇으리라는 결심으로 임직예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총현의 모든 성도들은 헌법이 언약한 자들을 능력의 주께서 친히 붙드사 거룩하고 귀한 도구로 사용케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임직예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확장되는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때때로 추수할 일꾼들을 넉넉히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임직자 명단은 본지 7면에 있습니다.)

2004년도 제5차 학습세례식 오늘 찬양예배 시에, 본당에서

학습·세례·입교·개종자들은 오후 4시 30분까지 본당으로
유아세례자들은 오후 2시 30분까지 갈릴릴로

NOW THE SUN ROSE UPON HIM

“...⁽³⁰⁾ So Jacob named the place Peniel, for [he said,] “I have seen God face to face, yet my life has been preserved.”⁽³¹⁾ Now the sun rose upon him just as he crossed over Penuel, and he was limping on his thigh.” (Genesis 32:22-31)

Jacob's life, as he crossed Penuel, was full of darkness. As he sat alone, in the night, by the ford of the Jabbok River, he knew that on the other side his twin brother, Esau, awaited to murder him, and perhaps his whole household. Esau was Jacob's worst enemy, and he had waited a long time to kill Jacob. Then, too, at his back was his father-in-law, Laban, his oppressor for some twenty years. Indeed, Jacob's past was causing a troubled future. The worst part of it all was that Jacob, whose name means “deceiver,” was the sole cause for all of his problems. He was a rich, prosperous man, but he had obtained all that he had through treachery and lies. His focus on the things of this earth had forced him to make one deceitful choice after another. Thus, he had made enemies of his family and neighbors, and now nobody was there to help him. The situation at hand was the price he had to pay for his wrong doings.

Now, Jacob was in trouble because he chose to do things his way. He deceived his brother out of his birthright, and stole God's blessing, also intended for Esau, from his father. Remember when his famished brother came in from the field, he bartered his tasty stew for his birthright, instead of just giving it to him (see Gn. 25:29-34). Later, we see Jacob's deceitfulness again, when his father was ready to give his sole blessing to his first son, Jacob lied to his father and pretended to be Esau (see Gn. 27:4-29). Understandably, these actions caused Esau to bear a grudge against Jacob, “The days of mourning for my father are near; then I will kill my brother Jacob” (Gn. 27:41). In addition, Jacob deceived his father-in-law, Laban, when he took off with his family and livestock without telling him. Every problem Jacob encountered was the result of his own doing.

Now, alone in the dark, with danger pressing ever closer, Jacob reached his lowest point. His vengeful brother with his 400 men was in front of him, and his unfriendly father-in-law was behind him. He was stuck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No matter how he looked at it, he knew that it was an extremely difficult situation. Finally, in his hopelessness, he started praying and then wrestling all night with God (see Gn. 32:9-12; 24). Obviously, no competition in wrestling with God, Jacob's socket of his thigh breaks. He is weak, tired, and his physical body has no power. His inside and outside environment are painful and shameful, yet he strives for God's blessing, “I will no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v. 26). In complete despair, he prays, cries, and pleads for God to save him. He does not trust himself or any outside source other than the Lord. The Lord finally asks him, “What is your name?”

Now, face to face with God, Jacob knows that his life has amounted to nothing good, that his possessions are meaningless. He is humbled and repentant. He tells God plainly that he is a deceiver named Jacob. He confesses that he is nothing but a liar and a sinner. In his brokenness, we see the incredible grace of God. At Jacob's confession, God tells Jacob not to call himself that anymore, “Your name shall no

longer be Jacob, but Israel; for you have striven with God and with men and have prevailed” (v. 28). God not only takes away his shame, but gives him the blessing of being called Israel, which means “son of God.” In confessing his sin, Jacob made peace with God, which means he made peace with his bloody brother. Romans 5:1 says, “Therefore,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and 1 Thessalonians 5:13 says, “Live in peace with one another.” God's wonderful peace gives us the ability to love others, and be at peace with them. Esau ran to meet Jacob and “embraced him, and fell on his neck and kissed him, and they wept” (Gn. 33:4). Only God can make that happen! Indeed, those who walk in dependence on God walk by His Spirit in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see Gal. 5:22-23).

“Now the sun rose upon him just as he crossed over Penuel, and he was limping on his thigh” (v. 31). Jacob named the place where he saw God face to face, and still lived, Peniel. He walked forward with new life. A brand new sun rose on his life. He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His new progress made him head for Bethel, a new place. He gave all his earthly material blessings to his brother because they no longer were important for him. He became generous, understanding that earthly possessions held no lasting value. Now, his life was a giving life. His life gave peace to all the other nations. Just as God blessed Abraham, now Jacob's life became Israel's life, proclaiming God's gospel.

Now, my dear friend, I hope the sun has risen upon your life. I hope that all the members of Choong Hyun have received new life. As today is an anniversary Sunday for the reformed church, let us remember how very much we need God's grace, mercy, and forgiveness. For 1600 years, before Martin Luther's message, Christians were led astray, living their lives according to worldly ways. They focused on acquiring earthly possessions and gaining respect from the world. The cross and its message were tarnished. Aren't we the same way today? We need His sunbeam to shine on us. We need to repent and make peace with God and with one another. Jesus calls to you,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Mt. 4:19). God is telling this Choong Hyun Church,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workers are few. Therefore beseech the Lord of the harvest to send out workers into His harvest” (Mt. 9:37-38). We must truly start praying to the Lord to receive forgiveness, and start new lives. Psalm 119:105 tells us,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to my path.” Let us not follow the world's way, but go His way. “By faith Jacob, as he was dying, blessed each of the sons of Joseph, and worshiped, leaning on the top of his staff” (Heb. 11:21). Not only was Jacob able to bless all twelve of his sons, but also his grandsons. When the sun rose upon him, he shined on other people. Now may the sun rise upon us and let us start new lives. Amen. 

다음주일 설교

새롭게 떠오른 해

“...³⁰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³¹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뿔로 인하여 절었더라”

(창 32:22-31)



김성관 목사

과거의 죄 때문에 고난에 처한 야곱

브니엘을 지날 때에 야곱의 삶은 철쭉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밤중에 야곱은 얌박장 나무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어쩌면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가장 두려운 적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오랜 세월 칼을 갈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문제는 형 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뒤에는 약 이십 년 동안 야곱을 착취해 온 장인 라반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잘못된 과거가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나쁜 점은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야곱이 스스로 잘못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돈도 많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속임수와 거짓말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그를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악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그가 늘 자기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놓고 형을 속였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형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몹시 시한한 형이 들관에서 돌아왔을 때 자신이 만든 붉은 죽을 형에게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장자권을 놓고 흥정을 했습니다(창 25:29-34 참조). 나중에 우리는 야곱의 속임수를 또 다시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하라 하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인 척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받습니다(창 27:4-29 참조). 당연히 에서는 야곱의 이런 행동 때문에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리라 내가 내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창 27:41). 야곱의 거짓말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자기의 장인 라반도 속입니다. 라반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을 향해 출발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만난 모든 어려움은 야곱이 행한 일들 때문에 생긴 것들입니다.

고통의 밀바다에서 부르짖는 야곱

이제 야곱은 어둠 속에 홀로 있습니다. 위험은 점점 가까이 다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습니다. 앞에는 복수심이 불타는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뒤에는 자신을 미워하는 장인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가망 없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 야곱은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밤새 씨름하게 됩니다(창 32:9-12; 24 참조).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씨름이니 야곱은 경쟁 상대도 되지 못합니다. 야곱의 환도뿔이 위풍됩니다. 야곱은 힘을 다 없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락의 모든 상황이 고통스럽기만 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씨름하고 또 씨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시니 아니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까”(26절). 완전한 절망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다른 것들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27절).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야곱은 자신의 삶이 결코 성공한 것도 아니요 자신의 재물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야곱은 겸손해져서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은 야곱이요 이름대로 자신은 속이는 자라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죄인이요 거짓말쟁이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깨어진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야곱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다시는 자신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28절b). 하나님은 야곱의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맺었고, 그 결과 진형 에서와도 화평을 맺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회복하라.” 하나님과 더불어 놀라운 화평을 맺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며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맺게 됩니다. 성경은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창 33:4).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갈 5:22-23 참조).

야곱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뿔로 인하여 절었더라”(31절).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보기도 saw아온 그 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야곱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인생에는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야곱은 새로운 장소인 벰엘로 올라가서 시작합니다. 전 재산을 행에게 주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이 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재물에는 영원한 가치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삶은 배푸는 삶이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야곱의 삶은 이스라엘의 삶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해가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날 우리 모두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의인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기억하도록 합시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일이나 복음을 외치지 전까지 약 16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길로 인도되어 세속에 물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의 명예를 얻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십자가의 메시지는 흐려지고 변색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해가 우리 위에 떠올라 그 빛을 비추주셔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형제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b). 하나님은 충현교회를 향하여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마 9:37-38).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행합시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되”(히 11:21).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로 구성된 열두 지파를 축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들로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해는 돌아 그를 비추었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우리 위에도 하나님의 해가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

수요1부예배 메시지

흰보좌(심판)

(계 20:11)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밧도 섬에 간
 흰 사도 요한!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관한 계시가 그에게 임
 한 것이다. 계시를 보던 그가 놀라운 간증을 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
 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요한은 크고 흰 보
 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더 이상 깊이 설명하지는 못한다. 다만 “땅과 하늘이 그 앞
 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라고 고백할 뿐이다. 그렇다. 주님
 의 보좌를 인간의 말로 어찌 다 설명할 수 있을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으니 주님의 보좌 앞에는 땅과 하늘도 그 앞에 있을 수 없
 정도 놀라운 권위와 영광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는가? 그래서 이 보좌 앞
 으로 나아가 그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때가 가장 즐겁다’(한 482장)라
 고 고백할 수 있는가? 만일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면 속히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기를 바란다.

심판의 장소를 표현한다

은총의 시대 속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장차 올
 세상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모든 불신자들이 요한이 본 지 흰 보좌
 앞에 서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전에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던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서야만 한다. 심판의 보좌를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사람
 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마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계 20:12,13). 그 날에
 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나 선하심이나 은총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로써 세계를 판단하시고 자신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판단하실 것이다(사 96:13). 이 판단은 최
 종적인 심판인지라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없고 은혜도 없다. 은총의 보혈과 십리를 기억한
 자들이 모두 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요 은총의 구원을 무시한 죄로 정죄되어 영원
 한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히 12:24,2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거절치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얻으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이다

심판의 보좌가 세상에 드러날 때, 해는 어두워지며 달은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은 흔들릴 것이다(마 24:29,30).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할
 것이다. 그들 앞에서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
 하고 교만음을 치던 사람들을 그 날에는 주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부끄러움과
 영원한 형벌을 당할 것이다(막 8:38, 살후 1:8). 이것을 믿는가? 심판의 보좌 앞에서 일어나게
 될 저 두려운 일들을 상상해 보라. 오늘날 우리가 예지중지 아가는 재산과 명예와 모든 것들
 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그 날을 상상해 보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인
 하여 애곡하는 그 날을 상상해 보라. 그 날에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
 땅에서 애곡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쁨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심판의 시간은 분명히 온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하나님과 백성없이 다 이루어진다. 구약의 예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이제 한 가지 남은 예언, 곧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기
 라는 이 예언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
 라”(마 24:35).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제물은 뜨거운 불에 불어
 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말씀대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이다(벧후 3:7,10,12,13). 그러므로 순식간에 없어질 이 세상에 우
 리의 소망을 두지 말자. 주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계 21:1).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를 맺도록 하자.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영원히 안전한 것이다.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 때문이다(사 102:25-27). 하늘의 만성이 사라지고 하늘들
 이 두무마리같이 말리되 마치 포도나무의 잎의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의 마름 같겠으나(사
 34: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는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사 51:6).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
 늘과 새 땅을 영원토록 소유할 것이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나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
 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백부스들에게 줄 거물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사 65:17,18).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바라보며 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십자
 가 앞으로 조용히 나아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하
 나님의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란다.

피택장로칼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

임창식 (피택장로)



영원히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역만간
 지 더럽고 추악한 죄를 눈보다 회개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내 속에 역사하시서 위 의 것을 바라게 하시는 성령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립니다. 불충분하여 자책까지하던 삶 속에서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 어찌 이런 감동할 수 없도록 큰지요. 내 속의 영혼이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몸된 교회의 중직을 맡겨주시니 무어라 감사하리요. 정말 복음
 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교회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세
 지말에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
 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인류에게 가없는 사랑
 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요 4:24)를 드리게 하셔서
 항상 주를 복음의 기쁨을 주시고 인간의 망령되고 추악한 죄악을
 고백하게 하셔서 정결한 천국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아니 매일매일 ‘충현의 만나’
 을 통하여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도구로 사용하시
 어 하나님의 성화가 존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그나마도 허리가 잘린 한국을 주님께서 사
 랑하시어 복음을 허락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생기게 하시고 그 뒤를 이어
 우리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복음에 빛난
 자’(골 1:14)로서 미진도 종족을 향하여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시
 니 감사드립니다. 저 북방 열읍성과 저 남방 산호초까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충언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
 해 참진단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케 하시어 정
 소년으로부터 노인까지 사용하시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정
 십자가 사랑의 체현으로 직장과 가정을 뒤로 하고, 산골짜기와 넓
 은 사막과 평원에서 말씀을 기다리는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므로 함께 울며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온전케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교우들이 감동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니 감
 사드립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막 12:31)하신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다부, 사방무를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게 하
 시고 교구의 이러한 형편을 돌아보며 서로 나누는 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갈 6:10).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우리들에게
 사랑의 표징이 되신 예수님, 고난의 십자가로 인하여 영원한 생
 명을 얻게 하시고 짧은 내그네 인생 가운데 귀한 나눔을 통하여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화
 저 가고 참 믿음을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 교회에 이렇
 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직분까지 주시
 어 사도 바울적 신앙(딤후 4:7)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저 또한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힘 있게 걷게 인도하옵소서. 말씀의 채찍 속에 순간순간 죄
 인임을 고백하면서 주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 속에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말며 이 길
 을 걸으실 것을 수 있도록 함을 주시옵소서(롬 14:8), 아멘.

주님의 마음,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하여

우리 팀이 2개월을 준비한 사역지가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다른 곳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준비한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회개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을 캐트리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주님께서 무언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따져보았을 때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팀원들 각자의 색깔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준비한 것도 없는데 바뀐 사역지에 도착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마귀가 정말 알았습니다. 아무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가는 데 왜 이토록 지치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역기간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또 왜 이 땅에 와야 했으며, 왜 우리들이었는지...

저가 만반에서 어느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라는 인물을 알고는 있으나 잘못된 교리를 배워서 전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에게 진리가 적힌 전도지 한 장을 전해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미약합니다. 전도지를 전해 주면서 "이것을 읽어 보세요"라는 말을 하고 그 내용을 다 읽을 때까지 기다리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그 한 영혼을 위해 지금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 비싼 비행기 값을 치루며 그 곳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 험한 길을 쉬지 않고 뛰어 다니시는 분, 그 분이 바로 저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며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단순히 한 사람에게 전도지를 건넨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전도지를 주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 사역을 마치고 평가회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몸은 피로했지만 마음은 정말 평안했습니다. 창 밖에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할 때..."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때 길거리를 가고 있는 한 장애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소아마비였고 휠체어에 의지하여 힘겹게 바퀴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전도지 한 장을 들고 방문을 잠그는 것도 잊은 채 호텔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 지체를 만난 순간 숨이 차 머리는 웃음을 지으며 뒤흔든 몇 마디 말들을 하고 전도지를 전했다. 그 분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습니다.

다시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동안 호텔의 여러 직원들이 나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에 한 동안 멍하니 앉아서 내가 무슨 일을 했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다급하고 간절한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팀이 사역지가 가는 길에 정한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 중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기대도 저의 욕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단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사역은 선교지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사단과 싸워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주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방해하고 시험합니다.

이번 선교는 팀원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아가자기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이적은 없었지만 작은 일을 가운데 역사하시어 주님의 귀한 마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단의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칩시다.

"불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누리(대학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게 하소서"

충요한 강도사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외선부에서 섬기다가, 지난 10월 20 일(수)에 아내 최리다와 어린 두 딸과 함께 사역지로 떠났다. 그곳에는 아무런 영교도 없다. 성령의 인도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충요한 (현진인 선교사)

저는 공산국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강력한 공산주의사상훈련을 받았습니 다. 공산주의사상의 바탕은 물질주의이고 유훈론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더욱더 중·고등학교 시절 하나님을 핍박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학교에 기독교인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학생을 따돌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원수였던 저를 사랑하셔서 1992년 우리나라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우리 지역으로 왔고 그때 처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훈론 사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어 보았지만 하나님께 정말 살아 계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을 꼭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요일 아침 기도시간이었습니다. 그 때 모든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때 목사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주셨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제 마음을 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의 강력한 심령이 얼음처럼 녹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비록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는 계속 속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에 선교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996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사랑' 교회에 지도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법들은 인간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0년,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현교회 외선부를 설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제가 잊고 있었던 중요한 것을 학교에서 찾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학교보다 교회에서 그 중요한 것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지만 교회사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방법,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충현교회에서 깨달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역이 성경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제가 영향을 받으며 자란 공산 정권의 잔재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사역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기도제목만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과 인간적인 방법들을 의지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삼년 반 동안 한국에 있는 동안 저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충현교회에 감사합니다. 충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 모든 사역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하소서.
- 온 가족이 사역을 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도록 하소서.
- 하나님께서 복음이 꼭 필요한 곳으로 사역지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개척할 수 있도록 하소서.
- 한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통하여 양육할 수 있도록 하소서.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10월 11일(월)~10월 19일(월)	11교구 6역	장경수	10월 12일(화)~10월 20일(수)	8교구 9역	김동필
10월 12일(화)~10월 20일(수)	8교구 6역	최복성	10월 12일(화)~10월 21일(목)	10교구 7차	이현진

2005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복음의 일꾼들

“너의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덕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선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움 뜻으로 하며 맡기는 자들에게 주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가 나타나실 때에 사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벧전 5:2-4)

당 회

서 기 / 노광현 부서기 / 김단용

에배워위원회

에배워위원장 / 오진국 지 도 / 정진호
서 기 / 장정길 회 계 / 황의만
에배부 / 정정길(장) 이태식, 신상수, 김중진
성태부 / 황영일(장) 김영은 차 장 / 김석윤, 이미재, 심효숙
안내부 / 안동현(장) 최윤덕, 강철형, 김은철
한구부 / 한송규(장) 황의만, 배춘식, 박철구

찬양위원회

찬양위원장 / 이 훈 지 도 / 고광환
서 기 / 이계인 회 계 / 유석민

전래대	대장	지휘	반주	부대장	출무
가브리엘	김건근	최광오	이승우	이명우 / 장민지	이명재
임마누엘	임창식	서준성	조희영	장민수 / 이현진	임준우
오케스트라	박정석	박정석	박정석	박정석	박정석
말씀소리	윤성민	김갑구	한광호	박성대 / 김호준	김성열
오케스트라	김갑구	박정석	박정석	박정석	박정석
이엔	이계인	서준성	김준경	김문섭 / 박소애	임우도
오케스트라	박정석	박정석	박정석	박정석	박정석
벨	전계식	김갑구	구자영	장기수 / 유순현	김지훈
오케스트라	박정석	박정석	박정석	박정석	박정석
홍 산 나	양신자	서준성	김준경	이희자	이영숙
실로암	윤성민	김갑구	한광호	김문섭 / 김홍자	이세영
예배	구재환	박정석	박정석	박정석	박정석
오케스트라	박정석	박정석	박정석	박정석	박정석
현 드 벨	김준경	송재현	박정석	박정석	박정석
만 드 린	이연순	이연순	구영희	최근준	최근준

제1교육위원회

제1교육위원장 / 차신득 지 도 / 김영호
서 기 / 정성현 회 계 / 노영환

교회학교	부장	지도	부감
영아부	문효식	이옥주	김성호 / 이상우
유아부	이상해	김정현	이세영 / 노혜경
유치부	전학래	조옥자	오순도 / 손유미
유년부	김형권	황진섭	김정기 / 김유순
초동부	석영식	윤수일	지규성 / 이종영
소년부	장승근	이재영	홍성주 / 김순임
중동1부	전순배	김영호	홍원식 / 유순호
중동2부	김신숙	여국근	박용기 / 김남희
중동3부	박승길	김교성	임복식 / 한 숙

제2교육위원회

제2교육위원장 / 조종환 지 도 / 안창덕
서 기 / 임창식 회 계 / 진홍용

교회학교	부장	지도	부감
고동부	구재환	이창수	오경희
대학부	전계식	안창덕	이복순
청년부	송두성	정진호	유진희
청년2부	조종환	김준희	김대식

제3교육위원회

제3교육위원장 / 김구형 지 도 / 나광영
서 기 / 박덕양 회 계 / 김승근

교회학교	부장	지도	부감
장년1부	박지환	김의환	장길남 / 석귀수
장년2부	박덕양	이경준	신진길 / 조혜순
장년3부	이창수	조규호	김진태 / 이혜숙
장년4부	김희철	이태부	문영진 / 박 순
사망부	김갑구	나광영	조영철 / 정호진
에배다부	신상수	박인기	윤병철 / 박무비
박아부	김승근	최문실	정원근 / 전경근

세가족 운영관리실

실 장 / 당회장 부실장 / 노광현

부서	부장	지도	부지도	부감
동독실	안동현	김달자	이영숙	
양육부	권명옥	위건량	이수경	박성영 / 김은심

전도위원회

전도위원장 / 이형수 지 도 / 류병희
서 기 / 정태두 회 계 / 박철기
전도부장 / 이형수 남전전도부장 / 이계인
전도훈련원부장 / 한송규 송원전도부장 / 배춘식
적능전도부장(군전도) / 심연진, 경환, 이미용, 노영환 / 권명옥
위 원 / 김영수, 함철주, 이갑재, 김영길

선교위원회

선교위원장 / 전종현 지 도 / 정현민 부지도 / 김교성
서 기 / 안석현 회 계 / 김연근
외선부 지도 / 이종철
외선부 부지도 / 정영일, 오철용, 김지훈, 김민철
단기선교부장 / 전종현 의료선교부장 / 엄필성
외선부장 / 안석현 선교훈련원부장 / 전종현
위 원 / 김은호, 이 훈, 이종석, 진홍용, 김구형, 원용철, 최윤덕
정선현, 김장국

봉사위원회

봉사위원장 / 김영달 지 도 / 김용덕
서 기 / 김창국 회 계 / 이다욱
구제부장 / 고세출 차량안내부장 / 함철주
재난부호봉사대장 / 박철구 호스피스회장 / 김창국
위 원 / 김영길, 정태두, 신상수, 이태식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장 / 당회장 지 도 / 여국근
위 원 / 노광현, 김은호, 이 훈, 이종석, 진홍용, 전홍철, 김단용
회 계 / 원용철

기획위원회

기획위원장 / 이종석 지 도 / 여국근
서 기 / 정성현 회 계 / 원용철
위 원 / 김의철, 이 훈, 이창호, 김광남, 이갑재, 진홍철, 김한기

교구위원회

교구위원장 / 김은호 지 도 / 이종대
서 기 / 장철환 회 계 / 김한기

교구 구역	목사	전도사	지 역	간사(남/여)
1 이계인	고광환	정현민	1.최세진 2.이보신 3.구원섭 4.윤한 5.양한원 6.김대호 7.이명성 8.김종우 9.이승재	정철원 / 이명지
2 김의철	이태부	김연진	1.박성대 2.문동우 3.박희성 4.이영환 5.정종환 6.김문섭 7.조세환 8.이영재	최현구 / 신영숙
3 이종석	김용덕	윤인숙	1.최하늘 2.김희철 3.이현진 4.김성호 5.이영재 6.정창수 7.문영진	박정철 / 김재자
4 김구형	류병희	신동자	1.이성식 2.오순도 3.박희철 4.신정환 5.문효식 6.김은호 7.유종석 8.박무비 9.이현우 10.최민진 11.신성길 12.류기영	이훈우 / 박미순
5 안석현	이성진	이옥주	1.김준호 2.정성호 3.김종현 4.정대호 5.박정석 6.김달자 7.정종환 8.박지환 9.이영재 10.김현철 11.신성길 12.류기영	박복현 / 임복배
6 고세출	이희자	김갑구	1.박광식 2.김갑구 3.이영재 4.김갑구 5.이영재 6.김현철 7.문영진 8.이영재	김영주 / 권연숙
7 임창식	장 준	조지자	1.송두성 2.최대호 3.김성현 4.정대호 5.최대호 6.최대호 7.이영재 8.이영재	조종민 / 김현숙
8 김준성	김준성	김준성	1.김갑구 2.유종환 3.박정석 4.김준성 5.박정석 6.최하늘 7.정대호 8.박정석 9.이영재	김갑구 / 박문숙
9 김갑구	정성영	류병희	1.홍병환 2.조종환 3.이영재 4.정대호 5.김갑구 6.이영재 7.김갑구 8.이영재 9.이영재	김갑구 / 정대호
10 최지훈	안석현	홍순애	1.박정석 2.김갑구 3.김갑구 4.김갑구 5.김갑구 6.김갑구 7.김갑구 8.김갑구 9.김갑구	이훈우 / 정대호
11 정철원	나광영	최문실	1.김갑구 2.김갑구 3.김갑구 4.김갑구 5.김갑구 6.김갑구 7.김갑구 8.김갑구 9.김갑구	김갑구 / 정대호
12 원용철	최광수	한영준	1.정대호 2.조종환 3.김갑구 4.정대호 5.김갑구 6.김갑구 7.김갑구 8.김갑구 9.김갑구	김갑구 / 이영숙
13 배춘식	김갑구	한영준	1.김갑구 2.김갑구 3.김갑구 4.김갑구 5.김갑구 6.김갑구 7.김갑구 8.김갑구 9.김갑구	김갑구 / 박복배
14 신상수	조규호	김갑구	1.조종환 2.김갑구 3.김갑구 4.김갑구 5.김갑구 6.김갑구 7.김갑구 8.김갑구 9.김갑구	박복배 / 김갑구
15 노광현	이영환	김갑구	1.최하늘 2.김갑구 3.김갑구 4.김갑구 5.김갑구 6.김갑구 7.김갑구 8.김갑구 9.김갑구	김갑구 / 김갑구
16 임우현	정성현	전종현	1.김갑구 2.김갑구 3.김갑구 4.김갑구 5.김갑구 6.김갑구 7.김갑구 8.김갑구 9.김갑구	이갑구 / 한영준
17 윤석민	임창식	김갑구	1.최하늘 2.김갑구 3.김갑구 4.김갑구 5.김갑구 6.김갑구 7.김갑구 8.김갑구 9.김갑구	박복배 / 김갑구
18 김갑구	한영준	김갑구	1.최하늘 2.김갑구 3.김갑구 4.김갑구 5.김갑구 6.김갑구 7.김갑구 8.김갑구 9.김갑구	김갑구 / 김갑구
19 조종환	이영환	이갑구	1.최하늘 2.김갑구 3.김갑구 4.김갑구 5.김갑구 6.김갑구 7.김갑구 8.김갑구 9.김갑구	김갑구 / 김갑구

행정위원회

행정위원장 / 진홍용 서 기 / 이일호 회 계 / 김중진
관리부장 / 이일호
기초원감 / 김중진 동산부장 / 김중진 상호회장 / 김중진
위 원 / 노광현, 이 훈, 노영환
자원봉사부장 / 김영수 차 장 / 박성영, 이순자
주간출연 지도 / 이태부
교재연구 지도 / 양재용, 최종철
(교육훈련원)
교육1부장 / 김단용 지 도 / 양재용, 최종철
교육2부장 / 황영일
교육3부장 / 장철환

재정위원회

재정위원장 / 이 훈 서 기 / 최무길
회 계 / 이다욱
위 원 / 노광현, 진홍용, 최윤덕, 조종환, 장철환

건축위원회

건축위원장 / 김갑남 서 기 / 황영일 회 계 / 최지훈
위 원 / 최무길, 이영주, 김영달, 이일호, 신상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 박종규 서 기 / 안종욱
회 계 / 함철주
위 원 / 안동현, 박덕양, 김승근, 임창식
경상부감사 / 박종규

법인운영위원회

법인운영위원장 / 노광현
위 원 / 이병학, 남신순, 차신득, 안종욱, 진홍용

총헌장위원회

회 장 / 당회장
부회장 / 이 훈 지 도 / 안창덕
위 원 / 노광현, 진홍용, 박종규, 조종환, 임창식

재직회

회 장 / 당회장
서 기 / 신상철
부서기 / 문효식, 김갑구, 구원섭

집사회

회 장 / 박성영 지 도 / 정현민
부회장 / 조종환

권사회

회 장 / 이순자 지 도 / 장 훈
서 기 / 유호준 회 계 / 박방자

지회

회 회장
1.지회 최신자 (1, 6, 10, 13, 14)
2.지회 조혜순 (2, 7, 11, 15)
3.지회 황진희 (3, 5, 8, 9, 12)
4.지회 하민자 (4, 16, 17, 18)

노회총대

노회총대 / 노광현, 이 훈, 진홍용

총헌교역 유지재단

이사장 / 김성관
이 사 / 노광현, 이병학, 차신득, 김갑구, 이종석
감 사 / 엄필성, 원용철

재단법인 총헌동산

이사장 / 김성관
이 사 / 노광현, 이 훈, 김중진, 진홍용, 최지훈, 정정길, 신상수
감 사 / 박종규, 전홍철

사회복지법인 총헌복지재단

이사장 / 김성관
상임이사 / 진홍용
이 사 / 김의철, 노광현, 김갑남, 임우현, 진홍철, 김단용
김 구형, 조종환
감 사 / 이 훈, 차신득

제36대 장로

이름 (교구 교적번호)
김연근 (17 83-419)
임창식 (7 80-10)

이름 (교구 교적번호)
김창국 (1 82-575)

이름 (교구 교적번호)
김중진 (8 4813)
(좌에서 우로 연형순)

제17대 안수집사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규우 (2 96-1223)
양은식 (5 91-317)
조성훈 (15 86-318)
김충진 (4 951)
김종성 (9 88-287)
최경하 (12 90-759)
허형철 (18 87-113)
김현철 (6 80-527)
박옥현 (5 94-523)
문경안 (17 90-665)
김병성 (9 92-47)
이창희 (9 86-24)
윤명범 (16 87-1)
전성욱 (8 82-223)
김성수 (16 91-1182)
조윤준 (13 92-816)
이재호 (7 89-324)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동경 (5 90-159)
신중식 (15 93-759)
박민호 (18 88-151)
이덕구 (8 84-1238)
유종식 (4 89-746)
김운섭 (3 82-395)
김옥진 (3 96-327)
이병두 (6 4919)
공석생 (14 80-750)
윤재균 (14 87-27)
최종순 (3 90-608)
서준성 (1 93-399)
윤용현 (7 88-170)
윤민재 (16 84-826)
김기태 (15 85-634)
홍순길 (1 94-585)
장병준 (7 96-561)

이름 (교구 교적번호)
박광석 (1 3411)
김현배 (10 83-613)
이용수 (10 81-38)
유재훈 (17 4667)
문홍우 (2 95-11)
구창희 (16 89-1159)
이희우 (4 93-1022)
지정록 (11 89-1073)
양효민 (9 84-1386)
박찬서 (11 93-642)
예정호 (12 87-745)
이상돈 (4 2674)
양승복 (13 90-553)
안준모 (4 94-877)
장기탁 (3 93-1759)
이신동 (7 82-183)
(좌에서 우로 연형순)

제45대 권사

이름 (교구 교적번호)
강영자 (18 87-831)
권정자 (2 85-43)
김명희 (3 552)
김순연 (8 80-755)
김애순 (3 82-290)
김자금 (14 79-550)
김현수 (17 81-628)
남경자 (1 85-829)
박일례 (15 94-814)
신금순 (10 82-369)
양상자 (12 80-61)
윤현숙 (9 84-538)
이수자 (6 85-432)
이연실 (7 84-921)
이춘희 (4 87-653)
전순진 (11 80-484)
정상화 (7 3378)
최근준 (2 92-715)
한기희 (4 92-1326)
허종숙 (3 92-1256)
장순옥 (5 95-1420)

이름 (교구 교적번호)
강옥련 (1 90-530)
권경희 (11 94-1143)
김신자 (15 86-133)
김순옥 (3 2745)
김은영 (13 89-1552)
김팔숙 (18 88-293)
김혜경 (12 92-1049)
박영숙 (9 5004)
양삼순 (1 85-519)
유복심 (2 93-552)
이상옥 (4 80-76)
이숙희 (14 86-534)
이민숙 (14 89-765)
이형숙 (14 679)
전유강 (18 84-463)
정경자 (3 91-948)
최금실 (12 2396)
한애현 (12 80-465)
현경남 (16 89-743)

이름 (교구 교적번호)
권연숙 (6 89-1082)
김금숙 (18 81-48)
김숙자 (7 89-416)
김영혜 (5 86-364)
김재명 (11 89-1073)
김현미 (9 2355)
나경순 (15 84-661)
박은숙 (13 94-1948)
양순옥 (10 81-312)
유현순 (5 93-732)
이소규 (8 4813)
이순남 (10 79-87)
이자경 (12 87-707)
장남희 (7 88-410)
정길래 (16 84-34)
정현자 (17 870)
최낙희 (17 93-1175)
허순자 (18 88-192)
황정희 (2 89-485)

(좌에서 우로 이름순)

청지기훈련 좌석배치도

다음 주일 찬송

389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다음 주일 찬송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있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시되었다.

이 찬송의 작사자 새바인 바링골드(Sabine Baring-Gould, 1834-1924)목사는 1864년 영국 요크셔의 성령 강림주일 후 월요일 특별 행사로 학생들을 인도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군기와 십자가를 높이 든 어린이들이 부를 찬송곡을 만들기 위해 그 전날 밤 늦게 작사하였다.

작곡자 아더 설리반(Arthur Sullivan, 1842-1900)은 오르가니스트요, 지휘자며 작곡교수로 왕실 교회에서 봉사했다. 라이프치히에서 음악을 공부한 후 오페라 서곡, 오페라, 발레, 성가, 찬송곡 등을 만들었으며 대중가요곡을 찬송곡으로 삼는 것을 반대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예수의 군병들 싸움하러 나간다. 우리의 찬송을 듣고 원수 마귀는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실패가 없으니 주의 교회는 영원 불멸하리.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인 왕서기신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싸움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자. 한 주간 동안 대강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자.

(천양위원회)

새·가·록·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702	오소영	1	청년2부	위건량(1)	2713	김미연	4	청년1부	손달형(4)
2703	강계숙	2	장년1부	김남욱(1)	2714	김문식	19	고등부	
2704	김신주	19	청년1부		2715	이세래	19	사랑부	진명화(17)
2705	권세현	19	고등부	강임구(1)	2716	황대순	19	사랑부	진명화(17)
2706	박성호	19	중등2부	장석윤(5)	2717	정영환	1	청년2부	
2707	김백현	19	중등2부	박경진(1)	2718	이철복	19	외선부	
2708	권용환	19	중등2부	김진순(5)	2719	김윤주	3	청년2부	
2709	김영숙	1	장년1부	장정애(1)	2720	박재형	3	청년2부	
2710	우연정	19	청년2부	김동주(15)	2721	임성훈	8	청년2부	송종식(4)
2711	홍종옥	5	장년1부	이강해(7)	2722	박준식	19	대학부	장성호(11)
2712	최승돈	1	장년1부						

* 출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목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모임

1. 김사 전례 회례

일시: 31일(다움주일) 1500

장소: 잔치당

2. 남대진도부 전도회장 회례

일시: 오늘 1500

장소: 배나홀

3. 고전도부 회례

일시: 20일(금) 1800

(저녁식사 1700)

장소: 배나홀

별세

1. 허영자 권사 정우선 타교장로의

부인, 15교구 사당6구역/ 14일

별세, 16일 장례

2. 정말배 타교장사 부혜수 안습사

사의 모친, 김성균 권사의 시모,

14교구 개북1구역/ 16일 별세,

18일 장례

3. 문봉태 타교장로 문봉애 권사의

부친, 11교구 저하구역/ 20일 별
세, 23일 장례

결혼

1. 이용재 군 (이철하 집사, 최영경

집사의 아들, 10교구)와 송윤경

양 (송병국 집사, 방희정 권사의

딸, 4교구/ 28일(목) 1200 갈릴

리움

2. 위종용 군 (이화순 타고 권도사

의 아들과 이선영 양 (이종삼 성

도, 허장숙 집사의 딸, 4교구/

29일(금) 1700 소망교회 전교관

2층 ☎ 512-9191

3. 권덕호 군 (권정기 씨, 박준기 씨

의 아들과 이종경 양 (이영일 성

도, 이정자 집사의 딸, 7교구/

30일(토) 1500 전가공제회 웨

딩룸 15층 ☎ 343-7640-1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25(월)	26(화)	27(수)	28(목)	29(금)	30(토)	31(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이창호	고광환/강만호	김익환/박영기	하종철/이정훈	임현덕/안상직	이희식/전희호	최종철/김영순

예배 담당안내 (10/27~10/31)

날짜	예배	예배 전 찬양	사 회 기 도	설 교
10/27	수요 I		이태복 왕덕자	외로운 길(창 12:28) 김성관 목사
10/27	수요 II		김성관 정현민	임직 받는 분들이여(몬 20:25) 신삼철 목사(두테이로 노회장)
10/29	창세기편		정현민	김성관 목사
10/31	주일 I		윤수일 김영우	새롭게 떠오른 해(창 32:22-31) 이재영 목사
10/31	주일 II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외설도 노회장(야비별 찬양대 솔로리스트)	안치원 고재승	새롭게 떠오른 해(창 32:22-31) 안창덕 목사
10/31	주일 III	나의 영원하신 기쁨 외(소프라노 주순진(브리엘 찬양대 솔로리스트))	나영영 이정우	새롭게 떠오른 해(창 32:22-31) 김성관 목사
10/31	주일 IV	이 세상 끝날까지 외(브리엘 여성중단(노회장 김명숙))	김영웅 정태두	새롭게 떠오른 해(창 32:22-31) 하종철 목사
10/31	주일 V	예수 나를 외로하게 외(테너 이상훈(찬양대 찬양대 솔로리스트))	이태복 강철형	새롭게 떠오른 해(창 32:22-31) 김성관 목사
10/31	주일찬양		고광환 강희광	성령을 좇아 행하라(갈 5:16-18) 정현민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회오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금요화양	오후 10:30	금요집회후 본당 앞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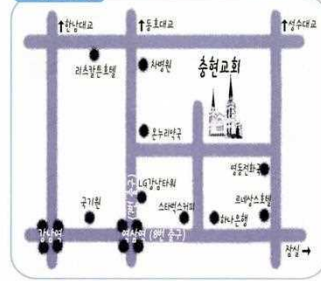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교육관 110호	창 년 2 부	오후 12:10	교육관 501호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창 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유 처 부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창 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양 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랑 부	오후 12:15	갈 릴 리움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선교사강부	오후 12:15	연호관 204, 205호
중 등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사 랑 부	오후 11:00	복자관 지하1호
중 등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예배마루	오전 8:00(복자관 150명) / 오후 2:00	교육관 207호
중 등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다 량 부	오전 9:00, 오후 2:00	교육관 110호
고 등 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새가족양육부	I 오전 9:15 II 오후 12:15	갈릴리움, 배나홀
다 학 부	오후 4:00	제2교육관 4층	총현이여미인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창 년 1 부	점오, 12:00	제2교육관 4층	간사및전교직원	주간교육	총현이여미인
			창 년 2 부	오전 11:00	아 연 룸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오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10월 충현 기도의 창

1.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시므로 성령의 도우로만 사용하시며, 말씀에 증거하시며 때마다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2. 영인 전부터 감추어 왔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예배 때마다 담대히 선포되게 하소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복음을 확신하며 그 복음을 자랑하게 하소서.
3. 충현교회의 단기선교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4.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남다른 삶 속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5.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6. 후반기 주상성경공부, 교사양성부, 찬양대원양성부, 전도대원훈련, 남녀구역장 양성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며 전하는 전국 일꾼들이 많이 성장하게 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김의철	김은호	노영현	오진국	이병학
2교구	2교구	당시 사기	2교구	2교구
이병철	강모용	이 훈	남선우	정운석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김영진	문홍구	조인재	김종구	최무길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이종석	안종호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임무진	이갑재	전종원	전종원	이정우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김단용	황영일	한승규	김영수	김한기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한용철	이형수	안동원	황의만	김구형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최원호	이재민	박익환	이태식	정태두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박광균	김명호	조종환	배준식	김영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이선호	최지훈	노영현	박철민	정정진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신상수	고재수	강철형	김영은	이달호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장철환	김승곤	함정주	윤석민	정진현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안석현	2교구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박익환	류병희	이종철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김영훈	여국진	김교섭	안창덕	나영영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정진호	김용덕	고광환	위진환	김익환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장 호	임현덕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안치원	이태복	정종신	양재호	이성진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조규호	최광진	이재영	이경준	이창수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김준희	윤수일	황진희	정성영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 여전도사	정현희	신동자	윤수진	한영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홍순애	이옥주	김갑자	안태순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조옥자	강덕별	최보민	전은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김경자	이수경	김경희	이복순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한성일	2교구		
	2교구			
■ 전임목장사 김소연				
■ 합력전교사 최효섭				